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

환영사

2023. 10. 31. (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성장과
해양금융의 발전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부산 해양·금융위크’가
어느덧 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산을
해양금융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주신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산시, 해양진흥공사, 마린머니,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Ⅱ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해양금융의 역할

전체 무역의 99%가 해상운송인 우리나라에서
조선업, 해운업 등 해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해양금융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산업은
대형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통해
산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야 하는 해양금융 역시
단순한 대출, 차입을 통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국제적인 ESG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해양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Ⅲ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주실적과
높은 물동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해양업계와 금융업계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한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물리적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듯이,

‘부산 해양·금융위크’가
해양산업과 해양금융을 연결시켜 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금융과 함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부산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